

0.02초 앞당겨라...광주시청 김국영 도쿄행 '마지막 도전'



전국육상선수권 오늘 개막
남자 100m 본인 기록 10초 07
올림픽 기준기록 10초05 깨야
한국신 세우고 2회 연속 출전 기대

한국 간판 스피린터 김국영(30·광주시청·사진)이 도쿄행 티켓 확보를 위해 트랙에 선다. 김국영은 25~28일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75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 출전한다. 목표는 올림픽 2회 연속 진출이다. 이번 대회에서 넘어야 할 벽은 2020도쿄올림픽 기준 기록이다.

도쿄올림픽 남자 100m 기준기록은 10초05다. 김국영이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이자 한국신기록(10초07)을 0.02초 앞당겨야 기준기록을 통과해야 한다. 기준 기록을 넘어서면 올림픽에 2회 연속 진출하게 된다. 김국영은 2016리우올림픽 당시 기준기록 10초16을 통과, 올림픽 무대에 섰다. 세계육상연맹이 인정하는 도쿄올림픽 트랙&필드 종목 출전권 관련 기록 인정 기간은 6월 29일. 김국영에게는 이번 대회가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대회는 예선과 준결승, 결승으로 진행돼 3차례 기회가 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정선종합운동장은 김국영이 100m 한국신기록을 세운 뜻깊은 경기장이다. 김국영은 2017년 6월 25일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BS배에서 10초13으로 기록을 경신한데 이어 이를 뒤인 6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치른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에서 10초07에 결승선을 통과, 개인 다섯 번째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심재용 감독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뛰는 만큼 김국영이 다시 한번 한국신기록을 수립하고 도쿄에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군체육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며 2019년 10초12, 2020년 10초29로, 한국 시즌 최고기록을 냈던 김국영은 지난해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다소 주춤했고 올해는 지난 13일 제50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10초34를 기록했다. 도쿄올림픽과 기록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지만 8개월여만의 실전이었다는 점에서 나쁜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다.

김국영은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장에서 스피드 훈련을 하고 정선으로 향했다. 심재용 감독은 "중별대회에 김국영이 실전훈련을 한지 한 달 만에 나선 시합이었고, 그런 면에서 기록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중별대회 끝나고 김국영이 광주에서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훈련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심 감독은 이어 "김국영의 현재 몸 상태도 나쁘지 않고 본인도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국영이 출전하는 남자 100m는 25일 낮 12시 10분 예선과 오후 4시 준결승, 그리고 26일 오후 4시 10분 결승이 열린다. 준결승과 결승은 대한육상연맹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럭키 가이' 권순우 올림픽도 품안에

일부 선수 불참에 이형택 이후 13년만에 올림픽 테니스 출전

권순우(24·당진시청)가 한국 선수로는 13년만에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23일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권순우의 도쿄 올림픽 남자 단식 출전 확인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권순우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형택(45·은퇴) 이후 13년 만에 올림픽 테니스 경기에 나가는 한국 선수가 됐다.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랭킹 77위 권순우는 상위 56명에게 주는 올림픽 단식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앞선 순번의 선수들이 일부 빠지면서 7월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 나가게 됐다. 앞선 순위 선수 중 일부는 부상 등 개인 사유를 이유로 불참하고, 또 일부는 한 나라에서 단

식에 최대 4명까지 나갈 수 있는 제한 규정에 걸려 제외됐다. 또 국가대표인 데이비스컵 규정 출전 횟수에 미달해 빠진 선수들도 있다. 28일 영국 런던의 워블던에서 개막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워블던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영국에 머무는 권순우는 워블던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귀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소속팀 당진시청에 합류해 올림픽 대비 훈련을 진행한 뒤 도쿄 올림픽 일정에 맞춰 일본으로 출국한다. 한국 선수의 올림픽 테니스 단식 역대 최고 성적은 1988년 서울 대회 김봉수와 김일순의 남녀 단식 3회전(16강) 진출이다. /연합뉴스



24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브 포럼에서 열린 NBA 동부 콘퍼런스 결승 1차전에서 애틀랜타의 트레이 영(오른쪽)이 밀워키의 터커에게 파울을 얻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영 48점 폭발' 애틀랜타 먼저 1승

NBA 동부 콘퍼런스 결승 밀워키에 116-113 승리

미국프로농구(NBA) 애틀랜타 호크스가 홈로 48점을 쏟아 담은 트레이 영을 앞세워 밀워키 백스와의 동부 콘퍼런스 결승에서 먼저 이겼다. 애틀랜타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브 포럼에서 열린 2020-2021 NBA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결승(7전 4승제) 1차전 밀워키와 원정 경기에서 접전 끝에 116-113으로 이겼다. 정규리그 동부 5위 애틀랜타가 3위 밀워키에 열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애틀랜타의 어린 에이스인 영이 3점 4개를 포함해 48점을 몰아쳐 팀에 승리를 안겼다. 1998년 9월생인 영은 만 22세 이하 선수 콘퍼런스 결승 한 경기 최다 득점 부문에서 '킹'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와 타이거를 썼다. 영은 11어시스트를 곁들여 더블더블도 기록했

다. 영은 올 시즌 큰 경기일수록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정규리그에서 평균 25.3점을 넣은 영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29.2점, 2라운드에서는 29점을 넣은 데 이어 이날 팀 특유의 절반 가까이 책임졌다. 1라운드에서 4위 뉴욕 닉스를, 2라운드에서는 1위 밀라넬피아 세븐티식서스를 무릎 꿇린 애틀랜타는 영 덕에 3시리즈 연속 업셋 가능성을 높였다. 리그 최고 선수로 꼽히는 밀워키의 야니스 아데토크노는 34득점 12리바운드로 분전했다. 경기 내내 박빙 양상으로 승부가 전개된 가운데, 종료 23초 전 111-112로 뒤지던 밀워키의 팻 코너리가 던진 3점포가 이어없게 에어볼이 되면서 승부의 추는 애틀랜타 쪽으로 기울었다. 애틀랜타의 이어진 두 차례 공격에서 영이 상대 파울 작전으로 얻어낸 자유투 4개를 모두 모두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매조했다. /연합뉴스

고영구 전대사대부고 배드민턴 감독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에

고영구 전대사대부고 배드민턴 지도자가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됐다. 고영구 선임 감독은 지난 4년간 광주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직을 수행하며 많은 유망 선수들을 배출했다. 지난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광주 최초로 남·여 고등부 동반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 감독은 2017년부터 3년간 광주코리아마스터즈대회라는 국제스포츠이벤트를 개최를 통해 우리 지역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고 광주시체육회는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폭력 속에 훈련하는 선수 이젠 없어야"

고 최속현 1주기...아버지 최영희씨 "스포츠 인권의 상징 되길"

어떤 아픔은 시간도 약이 되지 않는다. 귀한 딸을 가슴에 묻은 최영희 씨는 1주기가 다가오자, 더 큰 슬픔을 느낀다. 고(故) 최속현 선수의 아버지인 최영희씨는 23일 "아내는 딸의 방을 보며 눈물로 하루를 보낸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아이를 먼저 보낸 뒤,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나"라며 "단 하루도 숙현이를 잊은 적이 없지만, 숙현이가 떠난 날이 다가오니 기억이 더 또렷해진다"고 했다. 6월 26일은 고 최속현 선수의 1주기다. 작년 6월 26일 오전, 최속현 선수는 가족에게 '그 사람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최영희씨는 딸을 잃은 슬픔을 누르고 "다들 숙현이처럼 고통받는 선수가 없어야 한다"며 여러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최속현 선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렸다. 최속현 선수와 가족은 생애 마지막 4개월 동안 여러 관계 기관에 도움을 호소했다. 2월부터 6월까지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6월 26일에 세상을 떠났다.

최속현 선수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더디게 움직이던 관계 기관은 고인을 떠나보낸 뒤에야 속도를 냈다.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감독과 팀닥터라고 불리던 안준현 운동저방사, 장윤정, 김도환이 구속됐고 재판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4월 최속현 선수의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체육선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로 승인된 첫 사례였다. 최영희씨는 "그래도 숙현이가 세상을 떠난 뒤, 스포츠 선수의 인권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여전히 느리지만, 한국 스포츠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너무 일찍 떠난 숙현이가, 이름만이라도 스포츠 인권을 상징하는 선수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영희씨는 "예전에 숙현이가 힘들어할 때나 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참고 견딘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했다"고 떠올린 뒤 "내 생애 가장 후회하는 말이다. 단, 폭력 속에서 훈련하는 선수가 없었으면 한다. 내 마지막 바람이다. 나와 같은 후회를 하는 부모도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최속현 선수의 유족은 '최속현 재단'을 만들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발신제한
2관	발신제한
3관	크루엘라
4관	킬러의 보디가드 2
5관	킬러의 보디가드 2
6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9관	발신제한, 콰이어트 플레이스 2
7관 씨네커풀	루카,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
8관 씨네커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메이드 인 루프탑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기회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캐터필러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19:30,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377

즐거움
문화산책